

공예문화 거점도시 전주 행사 '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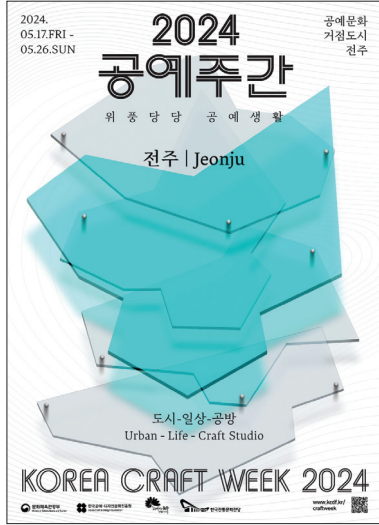
한국전통문화전당, 17~26일 전주한옥마을 일원서 공예주간 전시·체험 등 프로그램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17~26일까지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다양한 공예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4일 전당에 따르면 공예주간 공예문화 거점도시 행사 일환으로 △공예X오감 전시 △공예생활 토크콘서트 △공예굿즈 팝업마켓 △공예생활 이벤트 등 4개 행사를, 오는 9월~10월에는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싱스트리트(Sing Street)와 연계해 △지역 공예인과 함께하는 크래프트 스트리트(Craft-Street) 공예체험 행사를 운영한다.

먼저, 공예주간 첫날인 17일 전주공예품전시관 옆 오목대 전통정원에서 공예X오감 전시를 운영한다. 이는 9명의 무형문화재전인의 작품을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오감으로 만나는 참여형 전시다. 오감전시에는 전북무형문화재 최홍식(거문고), 김혜미(색지공예), 윤규상(지우산), 최종순(대금), 방화선(단선), 이신입(전주나죽), 이종덕(방각), 김준연(목조각), 김선애(지승제조) 등 9명의 장인이 각각의 작품을 오감에 맞는 콘셉트로 갤러리의 오감을 자극할 전망이다.

18일 오후 경기전 앞 야외특설무대에서 진행되는 공예생활 토크콘서트 제1부에서는 무형문화재 제19호 소목장 故 조석진 장인의 전수자인 권원덕 작가를 통해 조 장인의 삶과 정신을



2024 공예주간 포스터

되 돌아본다. 또한 조석진·권원덕을 거쳐 전통 짜맞춤 기법이 전수되는 과정, 젊은 권 작가가 나이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는 모습을 통해 세대를 잇는 공예의 가치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토크콘서트 부대행사로 전통제기, 짚지, 토퍼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체험은 물론 전사지 프린터를 이용한 용(籠) 만들기, 헤시타고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콘서트 2부에서는 무형문화재 제29호 사기장 토광 장동국 명인의 시간으로, 전통도자기의 명맥을 이어온 그의 48년 삶을 패널들과의 유쾌한 대화를 통해 풀어낸다.

이어 25~26일 전주수목원에서 진행되는 공예굿즈 팝업마켓 행사에서는 지역 공예작가와 함께 공예품 전시·판매행사가 진행된다. 팝업마켓 행사에서는 전주공예품전시관의 핵심캐릭터인 '호기로운 호사원' 굿즈 전시,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오는 9월 지역 공예인 40여 명이 참여하는 C-3 공예체험 행사가 공예품전시관 옆 오목대 전통정원에서 한 달간 진행된다. 아울러 단오를 앞둔 6월 8일과, 추석인 9월 15일, 한글날인 10월 9일 등 3차례에 걸쳐 공예생활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김도영 원장은 "공예주간을 맞아 공예문화 거점도시 전주의 명성에 걸맞게 풍성한 공예행사를 많이 준비했다"며 "기진호도(技進乎道)·기예로써 도를 이룸을 지향했던 선조들의 공예품을 통해 '손의 도시, 전주의 진수'를 오감으로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사제동행, 같은 길을 나아가다'

김제시, 벽천미술관 소장 문화재자 기증 작품 기획전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사제동행(師弟同行), 같은 길을 나아가다'라는 주제로 벽천제이리미술관 소장 벽천미술관에서 기획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벽천미술관 올해의 첫 전시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진행되며 이번 전시는 작년 미술관 기획전시 I(현정, 내 마음 준경을 답아)에 이어 두 번째 문화재자 기증 작품 기획전을 열었다.

이 작품들은 1999년 벽천미술관을 건립할 당시 벽천 나상목 선생의 문화 재자들이 존경의 마음을 담아 기증한 총 46점 중, 작년 1차 기획전시에 출품된 작품을 제외한 나머지 23점을 선별해 기획전을 준비했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문화 재자들의 작품 역시 서양화, 동양화 등 다양한 재료 및 기법을 사용했으며, 풍경화, 추상화 등 주제 또한 다양하다. 이러한 창의적인 주제를 가지고 문화 재자들은 각자의 개성을 담아 작품을 표현했다.

이러한 재자들의 창의적인 정신의 모태는 바로 벽천 나상목 선생에 대한 자긍심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전시 관계자는 "이끌어 주셨던 스승님의



가르침, 삶의 큰 스승이 계셨기에 재자들은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며 사제동행(師弟同行), 즉 스승과 같은 길을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벽천 나상목 선생의 문화재자들이 스승에게 무한한 존경(尊敬)을 담아 기증한 작품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동안 자주 선보이지 못했던 문화재자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프론티어 X 소리의 탄생' 참가자 모집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위원장 이왕준)는 오는 31일까지 '소리프론티어X소리의 탄생'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대상은 한국전통음악을 기반으로 10년 이내 활동한 음악 단체 및 개인음악가로서 예술가(단체) 고유의 레퍼토리 40분 이상 무대 공연(아외)과 '소리프론티어X소리의 탄생'에서 2곡 이상 새로운 창작곡(개작 포함)이 가능한 뮤지션이다.

다만, 국공립 문화예술 기관에 소속된 개인과 단체 및 학교·종교 기관의 소속 단체, 초·중·고 및 대학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는 제외된다.

뮤지션이 제출한 영상과 음원을 토대로 전문가와 관객 온라인 심사(1차 예선)를 통해 10팀, 2차 실연을 통해 6팀 내외를 선정할 후 2024 전주세계소리축제 기간 중 본선 무대를 통해 1~3위를 뽑는다. 1위로 선정된 팀에게는 JB소리상(상금 1,000만원)을 비롯해 국내외 유수의 페스티벌 무대 참가의 특전이 주어지며, 향후 활동에 대한 지원도 있을 예정이다. 2~3위 팀에게도 상금 및 다양한 후속 활동이 지원된다. /장은성 기자

'남원 춘향제' 주요 프로그램 열려

5개국 84명 지원 글로벌 춘향선발대회·춘향제편 등 진행

'춘향, 컬러에(COLOR) 반하다'라는 주제로 광한루원 일대, 예부원 특설무대 등지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94회 춘향제의 주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춘향선발대회는 1966년부터 시작해 '춘향다움'이라는 춘향의 가치를 알리고, 한국의 전통성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대회로, 박지영, 오정해, 윤순하, 이다혜 등을 배출했다.

특별 올해는 춘향선발대회가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로 문호를 개방, 그 영역을 확대하는 변화에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캐나다 등 5개국에서 84명이 지원했을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예선을 거쳐 5월 15일 오후 7시 30분, 메인 특설무대에서 본선 진출자 32명(국내 27명, 국외 5명)이 열린 경연으로 춘향의 열과 정신을 겸비한 당대의 가장 아름다운 춘향을 선별했다.

또한 15일 오후 6시부터 예부원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는 보이는 이동스튜디오·춘향제편('얕츠 업 춘향 남원 유니버스·HIP파티')도

눈여겨볼 프로그램으로, 춘향제편은 '축제=도시발전의 강력한 경쟁력'이란 명제 아래 K컬처의 중심인 더 글로벌해지고, 합체된 춘향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새개념 정책토크 콘서트로 이 자리에서는 시민, 관광객들과 호흡한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

이 자리에는 최경식 시장, 시 홍보대사 배우 이원준, 한복전문가 김혜순, 특별게스트로 최근 춘향전을 각색한 연극인 '안나전: Halo 춘향'의 연출과 주연을 맡은 독일인 배우 윤안나(본명: 안나 엘리자베트 빌만)씨, 올해 춘향제 먹거리 부분을 지원한 다보 외식산업개발원 조정민 부장 등이 출연했다.

춘향제는 1997년 문화체육부에서 선정한 전국 10대 축제에 포함돼 2000년대 초까지 한국 대표 축제로서 자존심을 지켰으며, 지난 2019년에는 정통성을 기반으로 대중성, 축제성까지 인정받아 대한민국 내 고향 명품축제로 선정되는 등 한국 전통문화 축제를 대표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지난 9일 '2024 예술인파견지원사업 - 예술로 180°'에 선발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선발 예술인 오리엔테이션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 9일 '2024 예술인파견지원사업 - 예술로 180°'에 선발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전문가 컨설팅, 기업·기관 소개 및 핵심과제 어필, 기업·기관 예술가 소통 네트워크 및 매칭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기업·기관 16명, 참여 예술인 38명, 컨설턴트 1명, 재단 직원 4명 등 총 59명이 참석했다.

최종 매칭된 기관 1개 소마다 리더 예술인 1명, 참여 예술인 4~5명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협업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미술, 음악, 무용, 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 38명을 기업·기관 7개소와 매칭 시켰다"며 "6개월 동안 함께 호흡하며 새로운 예술적인 프로젝트와 가치를 창출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단은 올해까지 5년 차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비 3억여 원을 확보했다. 리더 예술인 7명, 참여 예술인 31명, 참여기관 7곳을 선정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들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